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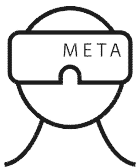


네번째 이야기

메타버스와 그리스도인 1

[일상을 넘어①]

1. 이미 메타버스 시대



2022년 1월 10일부터 23일
까지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목회자 6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귀하는 메타버스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응답자 중 17.3%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다’,
59.5%는 ‘개략적으로 알고 있다’, 22%는 ‘이름만
들어봤다’, 1.2%는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응답
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mhdat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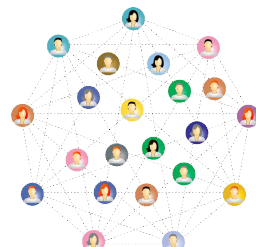
2021년 11월 3일 서울시는 ‘메타버스 서울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서울시 자체적으로 메타
버스 플랫폼을 구축해서 경제, 교육, 문화관광,
행정, 도시, 소통 등의 영역에서 공공서비스를 구현
한다는 내용입니다. [내 손안에 서울(seoul.go.kr)
2021.11.03.]

2021년 6월 28일에 열렸던 한국CCC(한국대학생
선교회) 온라인 여름수련회에서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CCC월드’와 ‘더포파크’가 운영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가상현실 속에서 마주치는 참가자들과
화상으로 대화를 하거나 CCC 역사, 1958 굿잡,
여름수련회, MBTI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했
습니다. [크리스천 투데이 2021.07.01.]

2021년 10월 28일 미국의 페이스북(Facebook)은
회사 이름을 메타(META)로 변경하였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미국 MZ 세대 중 40%는 여가의 25%를
메타버스에서 보내고 있으며 [국민미션포럼 2021,
김현철 목사], 온라인 친구와 오프라인 친구를 거의
동등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다가올 미래가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현실입니다. 메타버스 개념을 모르더라도
쿠팡, 배달의 민족, 당근마켓, 페이스북 등을 사용
하고 있다면 이미 메타버스에 살고있는 것입니다.
(BEE Korea 가족들은 지난 2월 ICT 위원회의
섬김으로 메타버스 토요일모임을 경험했습니다.)

2. 메타버스란?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1992년
“Snow Crash”(Neal Stephenson)
라는 SF소설에 처음 등장했
습니다. Meta(beyond, 초월)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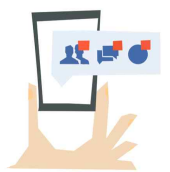
Verse(Universe, 세상)의 합성어
로써 ‘초월 세상’이란 뜻인데, 이 개념이 손에 잡히
듯이 명확하게 들어 오지 않는 이유는 현재 인류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진화하는 개념이기 때문입
니다. 따라서 수많은 기업이 이곳에서 새로운 기
회를 찾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메타버스는 아바
타를 이용해서 실생활과 같이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을 하는 가상현실 공간을 의미하며, 제2의 인터넷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국민미션포럼 2021, 이재훈 목사, 배순민 KT AI 연구소장] 또한 일반적으로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미국 미래 가속화 연구재단(ASF) 분류]

첫째,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은 디지털 데이터로 구축한 세계로서, 제페토, 로블록스, 포트나이트 같은 플랫폼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제페토 가입자는 2억 명을 넘었고 미국 MZ 세대들의 로블록스 사용 시간은 유튜브 사용 시간의 2.5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둘째,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은 현실 공간에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서 판타지를 입힌 세계로서, '포켓몬 고' 같은 게임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업성 측면에서 기업들로부터 가장 주목 받고 있는 유형입니다.

셋째, 거울세계(Mirror worlds)는 현실 세계를 복사하듯이 만들어 낸 세계로서, 디지털 트윈이라고도 부릅니다. 온라인 쇼핑, 온라인 음식 배달, 온라인 숙박 예약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022년 1월 기준으로 온라인 쇼핑 플랫폼 쿠팡의 직원 수는 65,138명인데, 이는 대형마트 3사(이마트-30,070명, 홈플러스-20,156명, 롯데마트-11,636명)의 직원을 합한 숫자보다 많습니다. [한국경제, 2022. 02. 23.]



넷째, 일상기록(Life logging)은 일상의 정보를 데이터화하는 것인데, 스마트워치나 SNS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현재 교육(강의, 입학식, 졸업식), 문화예술(가상 공연, 가상 팬 사인회, 가상 전시회), 광고 및 상업(가상현실 속 브랜드 입점, 배너 광고), 게임, 비즈니스(회의, 마케팅, 신입사원 연수) 등의 영역들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와 메타버스를 연결하는 기술이 실감기술인데, 실감 기술이 발전할수록 메타버스는 우리 삶에 전방위적으로 깊숙이 들어오게 됩니다. 메타버스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동시에 교회와 선교사역에도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헬라어와 로마 가도가 복음 전파에 큰 역할을 했었고, 종교개혁 시대에는 인쇄술이 큰 역할을 했듯이, 오늘날에는 메타버스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VR 선교지 체험, 노약자나 중환자의 VR 예배 참여, 성경 중요 사건 체험 등 적용 분야가 무궁무진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을 열두 제자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으며, 십자가 세미나를 골고다 언덕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공부할 때는 바울의 선교 여행에 함께 갈 수도 있습니다.

3. Digital Native (MZ 세대)

오늘날의 세대를 구분할 때 베이비붐 세대(아날로그 세대, 28%), X세대(디지털 이주민, 24%), 밀레니엄 세대(디지털 유목민, 21%), Z세대(디지털 네이티브, 16%)로 구분하는데,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를 합해서 MZ 세대라고 부릅니다. MZ 세대는 인구의 1/3에 해당하는데, 소비의 중심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디지털 네이티브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메타버스 세계관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미션포럼 2021, 배순민 KT AI 연구소장]

2020년 8월 미국 시가총액 상위 1위~8위 기업 중 절반이 메타버스 기업(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텐센트)인 것은 이러한 추세가 잘 반영된 것입니다. [김상균, 『메타버스』, (플랜비디자인, 2020)] 이미 인류의 메타버스로의 이주는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볼 때 MZ 세대에 대한 이해는 곧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로 연결됩니다. MZ 세대를 이해하고 소통하고 그들 속에 복음의 상황화와 토착화를 이루어가고, 나아가서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즉 오늘날은 MZ 세대를 위한 메타버스 선교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메타버스 이야기는 2주 후에 계속됩니다.)

[글쓴이 장원규 집사]



하나님의 은혜로 2014년부터 BEE Korea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온누리교회 안수 집사로 섬기고 있으며, 햇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TTGU)에 재학 중이다. 예수님을 닮은 아내와 에너지 넘치는 3남매와 함께 살고 있으며 한의사로 일하고 있다.

[정리: 이경주 편집: 최선]

그림 속 His-story



성 마태의 소명

(1600, 322x340 캔버스 유채,
로마 산 루이지 데이 프란체시 성당)

카라바조의 <성 마태의 순교>, <성 마태와 천사>와 함께 나란히 성당에 그려져 있다. 소명과 사역과 순교의 연작이 각각의 그림의 의미를 강조한다. <성 마태의 소명>은 선술 집이나 도박판 같은 분위기의 장소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에 시선이 모인다. 의아해하는 마태의 얼굴에는 달린 창문 너머 그리스도의 머리 위를 지나 내려 비추는 빛이 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은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에 그려진 손을 연상하게 한다.

BEE 소식

1. 2022년 “일상을 넘어 쫓대를 향하여” 일상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BEE 가족을 축복합니다.
“쫓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3:14).”
2. 위드 코로나와 방역지침에 따른 일상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팔로 BEE 가족을 안아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또한 온전하게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3. 2022년도 상반기 FTS가 3월 19일(토)에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헌신된 8명의 BEE 예비 인도자를 축복합니다.